

울산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역량 향상 프로그램 성과

✎ 최은진 기자 | ⓒ 승인 2026.06.08 14:05

산업현장 맞춤형 한국어 실습 및 피드백으로 의사소통 역량·자신감 높여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역량 향상 프로그램. 사진=울산대 제공

울산대학교는 지난 4월부터 이달 5일까지 HD현대중공업 내 뿌리아카데미에서 운영한 '2026학년도 산업현장 기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산대 글로벌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울산지역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UbiCam 1호에서 8주간 주 1회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 근무 장소 설명, 요청 사항 전달, 전화 통화, 약속 잡기 등 실제 업무와 생활에 밀접한 말하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특히 실습 중심의 수업과 강사의 1대1 개별 피드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과정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 총 10개국 출신의 울산지역 조선·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52명이 참여해 뜨거운 학습 열기를 보였다.

울산대는 프로그램 교육 전후로 말하기 능력 평가를 실시해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표현성, 전달성, 내용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결과, 참가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청·응답·보고 능력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자신감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박주식 울산대 글로벌대학 추진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자신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과 지역 정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진 기자 news@dhinsight.co.kr